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46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박준현 父 기뻐 울때 '학폭' 피해가족 숨죽여 눈물..."선처 생각 바뀌어

뉴스1 신성철 기자

02

지역을 다시 세우는 힘, 스포츠에서 찾다

영남일보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03

대한체육회, 내년 예산 3451억 원...‘생활·전문체육 연계’ 강화

무예신문 최현석 기자

04

'최초의 체육인 교육기관'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장흥서 개원

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05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국가 표준화 추진...진종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자신문 박윤호 기자

01

박준현 父 기뻐 울때 '학폭' 피해가족 숨죽여 눈물…"선처 생각 바뀌어"

뉴스1 신성철 기자

2025.12.12 오후 05:55

사진=뉴스1 TV 캡처화면

"만약에 저쪽(박준현)에서 행정소송을 하든 뭘 하든 최대한 다 준비해서 맞서 싸울 거예요"

키움 신인 투수 박준현의 학교폭력을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인정받은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같이 다짐했다.

A씨는 11일 오후 뉴스1과 인터뷰에서 "행심위 결론이 나온 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 걸 보면 박준현과 그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어제라도 입장을 냈다면 온라인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났겠느냐"며 눈물을 삼켰다.

지난 8일 행심위 재결 결과가 나온 이후 야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피해자와 야구선수인 피해자 동생 신상이 유출되는 등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

A씨는 "처음 학폭을 신고했을 때 우리가 바랐던 건 박준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아닌 진실 규명과 사과뿐이었다"며 "1호(서면 사과) 처분이 나왔을 때도 개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를 두고도 이전까진 세상이 다 내 편일 순 없다고 생각하고 넘겼다"며 "하지만 어제 신상까지 유출하며 피해자와 가족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A씨는 충남교육지원청에서 사건을 '학폭 아님'으로 판단한 이후 학교와 온라인에서 '거짓 신고자'로 몰렸다고 토로했다. 행심위가 판단을 뒤집기 전까지 일가족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석 법무법인 태광 변호사는 "학교와 학부모, 야구부 감독 등 집단적으로 박준현 선수를 보호하려 했다"며 "피해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이 증언을 해주지 않는 등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폭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첫 신고 당시 고등학교 진학을 앞뒀던 피해자 동생도 야구선수"라며 "이 분쟁에 엮이면 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주변에 외동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01

그 사이 박준현은 2026 한국프로야구(KBO)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됐다. 지명 현장에서 아버지인 박석민 삼성 2군 코치가 눈물을 보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드래프트 직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학폭 관련 질문에 박준현은 "땀땀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아내가 그 장면을 보고 울었다"며 "피해자는 조용히 TV를 끄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스1은 11~12일 박 코치에게 반론 의사를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음은 A씨와 일문일답.

-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보고 심경이 어땠는가.

▶ 처음에 행정심판 시작할 때 의도 자체도 박준현 선수 벌하고 이런 목적은 없었다. 저희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작했다. 절차상 행심위에서 박준현의 처분 수위에 대해 의견을 묻기도 했지만,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쓰지 않았다. 그래서 서면 사과 처분이 나왔을 때도 개의치 않았다.

- 재결서에는 "박준현이 반성하고 있고 화해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기재돼 있다. 이 사건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는가.

▶ 어젯밤(10일)에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 SNS상 2차 가해 정도가 장난이 아니다. 저희 둘째 아이 신상 정보가 완전히 노출됐다. 첫째 북일고 누구, 동생 누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쪽 써냈다. 지금(11일 오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분들이 어제라도 뭔가 입장이 나왔다고 하면 어젯밤에 봤던 그런 2차 가해 행위가 있었겠는가.

- 선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심한 건가.

▶ 그렇다. 지금 상황을 박준현 선수나 저희 큰아이가 만든 게 아니다. 박준현 주변 어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 어른에는 북일고등학교도 포함이 돼 있고 야구부 지도부도 포함돼 있다. 박준현의 아버지 박석민 코치도 마찬가지다.

01

- 2026 KBO 드래프트 당시 박준현은 학폭 논란 관련 질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박 코치가 눈물을 보이면서 화제가 됐다.

▶ 그렇게 할 줄 알았다. 굉장히 뻔뻔하다고 느꼈다. 가족들이 생방송으로 드래프트를 다 같이 봤다. 아내는 울었다. OO이(피해자)는 TV 끄고 딱 말았다. 얘기를 그냥 일절 안 하더라.

- 피해자의 심리 상태는 어땠나.

▶ 행심위에 진단서도 제출했었지만 병원가서 진단받고 상담하는데 피해자 심리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혼자 있는 시간을 어지간하면 두면 안 된다고 했다. 다른 병원도 가봤는데 같은 진단이 나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업으로 하던) 일을 소홀히 하면서 아이만 보살폈다. 교육청에서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길래 세 번째로 받아보니 거기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시더라. 처음 병원 진단받은 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인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11월부터는 아예 학교를 안 가게 했다.



지역을 다시 세우는 힘, 스포츠에서 찾다

영남일보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2025-12-14 20:47

사진=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스포츠를 단순히 경기력과 성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늘날 스포츠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자 지역 사회망을 잇는 연결망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장과 체육시설은 운동을 위한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이 모이고 교류하는 생활 거점으로 기능하며, 지역의 시간과 일상을 조직하는 생활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 관광 전략을 앞다투어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포츠가 열리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의 이동은 곧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진다. 대구마라톤대회, 전국 단위 종목별 경기, 프로축구 홈경기 등이 지역 상권 회복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경기 당일 인근 상점과 음식점 매출은 평소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원정 응원객은 지역에 머물며 숙박·관광 소비를 발생시킨다. 스포츠가 도시재생의 동력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특히 프로 구단을 보유한 중소도시의 경우, 단 한 번의 홈경기만으로도 숙박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즉각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마라톤, 축구, 야구, 철인3종 경기와 같은 대규모 체육대회는 외부 방문객을 대거 유입하며 지역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 지역경제의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역산업을 확장시키는 데 스포츠가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스포츠를 더 이상 주변적 산업이 아닌 자생적 생태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는 또한 지역 인재 발굴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종목별 클럽, 학교 스포츠 클럽, 지역체육회 등이 조성한 성장 경로는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지역 스포츠 생태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전문 지도자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지역에서 성장한 선수가 전국체전과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두면 그 의미는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선다. 지역 주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후배 세대의 도전을 이끌며, 지역 스포츠 정책의 당위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스포츠는 결국 지역의 상징 자산을 형성하는 근원적 힘을 갖는다.



스포츠가 지닌 문화적 기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운동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소통은 주민 간 관계망을 넓히고 세대 간 단절을 완화한다. 청소년에게는 건전한 여가와 자기 성장의 장이 되고, 고령층에게는 건강 유지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스포츠가 공공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지역 스포츠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참여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은 노후한 체육시설을 개선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일수록 스포츠의 역할은 오히려 더 절실하다. 함께 운동하고 응원하며 축제를 즐기는 경험은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결속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스포츠는 기록을 남기지만, 지역 스포츠는 지역 사회망을 남긴다. 작은 동호회의 활동이 국가대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 한 명의 방문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지역의 에너지를 일깨우는 힘, 지역을 다시 세우는 힘은 거창한 정책이나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라 바로 이 땀과 응원이 모이는 스포츠 현장에 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고, 지역이 있으며, 돌을 단단히 잇는 스포츠의 기반이 있다.

이제 스포츠와 지역이 함께 숨 쉬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야 할 때다.

대한체육회, 내년 예산 3451억 원…‘생활·전문체육 연계’ 강화

무예신문 최현석 기자

2025-12-15 14:21

사진=무예신문

대한체육회의 2026년도 예산이 3451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654억 원(23.4%) 늘어난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유관기관이 수행하던 일부 체육 사업이 대한체육회로 이관되고, 체육인 처우 개선과 선수 육성·훈련 환경 개선 예산이 반영되면서 전체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이번 예산에는 체육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포함됐다. 7년간 동결됐던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급여는 7.6% 인상되며, 회원종목단체 직원 인건비도 정부 공통 인상률에 따라 3.5% 오른다. 현장 지도자와 행정 인력의 처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잇는 사업도 대한체육회가 직접 맡게 된다. 스포츠클럽 디비전(274억 원), 지방체육진흥(172억 원), 전략종목 육성(80억 원), 은퇴선수 진로 지원(12억 원) 등 12개 사업, 총 6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이관됐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부터 엘리트 체육까지 보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도 확대된다. 출전비 단가는 9년 만에 38% 인상돼 1인당 8만2000원에서 11만3600원으로 조정됐다. 신규 종목 참여 기회도 늘어나 더 많은 학생선수가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회식 예산이 반영돼, 2026년 부산 대회부터 15년 만에 개회식이 다시 열린다.

선수 육성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국가대표와 후보선수 사이 단계로 ‘예비 국가대표’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관련 예산 30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배드민턴과 레슬링 등 5개 종목, 119명을 대상으로 연간 100일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0년 청소년대표 육성체계 도입 이후 처음 마련된 새로운 단계다.

국가대표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가대표선수촌 메디컬센터에 MRI 장비가 처음 도입되며, 전문의 인건비 등을 포함해 14억 원의 의료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태릉선수촌과 평창동계훈련센터의 시설 개보수와 관리에는 54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올해 말 개원 예정인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이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우수선수 성장 지원 교육(4억5000만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전문교육(6억 원)이 포함됐으며, 선수·지도자·심판의 진로 및 종목 전환을 돕는 교육 사업도 8억 원 규모로 새롭게 편성됐다. 교육 관련 신규·확대 예산은 모두 18억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경기대회를 대비한 훈련·파견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처우 개선과 훈련 환경 개선, 유망주 육성 요구가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며 “사업을 책임 있게 집행해 체육인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4

'최초의 체육인 교육기관'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장흥서 개원

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2025-12-11 17:08

사진=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체육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이 전남 장흥에서 문을 열었다.

대한체육회는 11일 전남 장흥군에서 유승민 회장을 비롯한 체육계 주요 인사와 지역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2022년 착공해 약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정식 운영을 시작한 개발원은 국가 스포츠 발전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 교육기관이다.

앞으로 선수와 지도자, 체육 행정가, 생활체육 관계자 등 다양한 체육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인권·윤리 등 필수 가치 교육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교육 환경도 도입해 국내 체육 교육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날 개원식에서 직접 비전 발표에 나선 유 회장은 "개발원은 모든 체육인의 염원을 담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체육인 교육기관"이라며 "체육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스포츠의 가치를 함께 느끼는 배움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국가 표준화 추진…진종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자신문 박윤호 기자

2025-12-12 09:19

사진=진종오의원

지역·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복리후생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지방자치단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공표 △호봉제·장기근속 수당·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 명확화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생활체육 참여율 65%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2030년) △전 세대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국민체육센터 확충 △전 국민 스포츠 포인트 제공 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를 순회하며 수렴한 의견과 생활체육 지도자 간담회에서 도출된 요구가 폭넓게 반영됐다. 현장에서는 △통일된 수당 체계 △호봉제 도입 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직급체계 정비 △정규직 전환 이후 늘어난 복리후생비 부담 등이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문체부에 제도·예산 개선을 연이어 촉구해왔다.

그는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식대 등 '3종 수당'이 전액 지방비여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은 아예 수당이 없다”며 “장거리 이동 시 유류비까지 자비 부담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차 추경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52억 원 반영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정부가 65% 참여율을 말하면서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 처우를 외면한다면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더는 묵살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